

#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항 및 제시문

(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탈춤이 우리의 고유한 민속으로, 주로 양반 계급의 위선<sup>1</sup>을 풍자하는 데 쓰였다고 배웠다. 물론 나는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홍콩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다. 영화의 주인공은 청룡이었는데, 영화 속에서 그는 사자 모양의 큰 탈을 쓰고 경연<sup>2</sup>한다. 그가 쓴 탈은 우리나라의 탈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그러면 우리의 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탈을 우리 고유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중략)

이런 문제에 대해 이미 조지훈이 고견을 내놓은 바 있다. “ (중략) 문화라든지 사상은 이동하고 복합되는 것이 본질이고, 그 이동하고 복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민족 문화의 개성 있는 성격을 ‘고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략)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것과 같으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다른 곳에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을 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략)

고유성이 시원(始原)<sup>3</sup>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라면, 즉 독특함이 바로 개성이고 고유성이라면, 한국적인 것을 판단하는 데 시원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략)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우리가 개성과 독특함을 붙여넣고 또한 갖게 했다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1.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2. 경연: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 예술, 기능 따위의 실력을 겨룸. 3. 시원: 사물, 현상 따위가 시작되는 처음.

(나) 변 씨가 이번에는 판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중략)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중략)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sup>1</sup>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sup>2</sup>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중략)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1. 빈공과: 중국 당(唐)나라 때에,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科擧). 2. 호복(胡服): ① 만주인의 옷. ② 오랑캐의 옷차림.

(다) 조선은 사대교린을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명을 큰 나라이자 문명국으로 섬긴다는 의미의 ‘사대’, 그 밖의 여진, 일본 등과는 이웃과 대등하게 교류한다는 ‘교린’을 원칙으로 하였다. 명과의 관계에서 태조 때 요동 정벌 추진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태종 이후 관계가 회복되면서 활발히 교류하였다.

조선은 여진에 대해서는 영토 확보와 국경 지방의 안정을 위해 회유책과 강경책을 함께 사용하였다. 무역소를 설치하고 귀화를 장려하기도 하였으나, 국경 침입 시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하였다. (중략)

만주에서는 명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여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세웠다(1616). (중략) 후금은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 나라 이름도 청으로 바꾸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항 및 제시문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다가 척화파의 주장이 힘을 얻어 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병자호란, 1636). 조선 조정은 남한산성에 고립된 채 45일간 항전하였지만, 결국 청에 굴복하여 인조가 직접 삼전도에 나가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다.

(라) **〔앞부분 줄거리〕** 1636년(인조 14) 청의 대군이 조선을 침략하자 임금과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가운데 인조는 청의 장수 용골대의 문서를 받게 된다. (중략)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러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예조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운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돌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중략)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판의 말은 몽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戰)이 본(本)이고 화(和)가 말(末)이며 수(守)는 실(實)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중략)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중략)

최명길은 계속 말했다.

“전하, (중략) 묘당의 말들은 이른바 **대의**로 쏠려서 **사세**<sup>1</sup>를 돌보지 않으니,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사세를 살피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세가 말과 맞지 않으면 산목숨이 어느 쪽을 좇아야 하겠습니까. (중략)”

김상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략) 묘당의 말들이 그동안 (중략) **대의**를 향해 공론이 아름답게 모인 것이옵니다.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어야 **사세**를 살필 수 있을 것이운데, 명길이 저토록 조정의 의로운 공론을 업신여기고 **종사**<sup>3</sup>를 호구(虎口)에 던지려 하니 명길이 과연 전하의 신하이옵니까?”

1. 묘당: 조선 시대 행정부의 최고 기관인 '의정부'를 달리 이르던 말. 종묘(宗廟)와 명당(明堂)이라는 뜻으로 조정(朝廷)을 일컫기도 함. 2. 사세(事勢): 일이 되어 가는 형세. 3. 종사: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이르는 말.

**〔문제 1〕 제시문(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 친 ㉠에 나타난 허생의 인식을 비판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문제 2〕 제시문(다)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라)에서 말하는 ‘대의’와 ‘사세’의 의미를 각각 정의하고, (라)의 김상헌과 최명길의 주장을 요약한 후, (나)의 허생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예시 답안

1. 제시문(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 친 ㉠에 나타난 허생의 인식을 비판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가)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고유문화는 그 문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보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녔는가로 판별된다고 설명한다. 즉 그 시원이 어디든 이동하고 복합하는 과정에서 개성과 독특함을 불어넣어 그 특성을 갖게 한 국가나 민족의 소유라는 것이다.

반면 (나)의 허생은 조선인이 입는 흰옷을 상복이라 하거나 상투를 남쪽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폄하한다. 조선인들은 흰옷을 상복으로도 입지만 일상복으로도 즐겨 입어 백의민족이라고 불린다. 개성과 독특함을 갖춘 고유의 복식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허생의 인식을 비판할 수 있다. 남쪽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한 상투 역시 조선 성인 남성의 머리 문화로 정착했다는 점에서, 그 시원과 상관없이 고유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은 오랑캐 땅이므로 그 안에서 사대부라고 자칭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허생의 인식도 중국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민족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므로 비판할 수 있다.

2. 제시문(다)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라)에서 말하는 ‘대의’와 ‘사세’의 의미를 각각 정의하고, (라)의 김상헌과 최명길의 주장을 요약한 후, (나)의 허생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다)에 따르면, 조선은 명나라는 문명국으로서 사대하고 여진족 등 주변 민족과는 교린하는 정책을 외교 노선으로 삼았다. 그러나 명의 국력이 쇠퇴하는 시기에 여진족은 급속히 강성해져 국명을 청으로 바꾸며 조선에 대하여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조선은 중화 문명의 정통으로서 명을 계속 받들어야 한다는 ‘대의’와 현실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청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사세’ 사이에서, 척화파와 주화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었다.

(라)의 김상헌은 ‘대의’를 지킬 것을 주장하는 척화파이다. 그는 화친은 내실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청과 화친하는 것은 곧 군신 관계를 수용하고 나라를 넘기는 투항과 다름없으므로, 청군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은 ‘사대’할 수 없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최명길은 ‘대의’를 지키자는 공론도 ‘사세’와 맞아야 하는데, 청군에 맞서 버틸 힘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으므로, 당장 화친할 것을 주장한다. 즉 최명길은 강성해진 청나라에 맞설 힘이 부족한 조선 현실을 돌아보며 ‘사세’를 먼저 살피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이다.

(나)의 허생 역시 명에 대한 원수를 갚고 대의를 지키려는 인물이다. 이를 위해 허생은 우선 청에 첩자를 보내거나 호걸과 결탁하고 관리나 상인이 되어 그곳의 실상을 파악하면서 기회를 찾자 한다. 허생의 관점에서 보면, 김상헌은 ‘대의’라는 정통과 이상에 매몰되어 현실적 방안은 모호했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소홀했으며, 최명길은 ‘사세’는 파악했으나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느라 명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허생은 비록 소설 속 가상 인물이긴 해도, 그의 전략은 비교적 주체적이고 장기적이며 상대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채점기준표

## <인문계열>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문항 1번	이해력	40	250	700
	분석력	60		
	비판적 사고력	70		
	표현력	40		
	정서법	40		
	분량	0 ~ -70		
문항 2번	이해력	60	450	
	분석력 1	60		
	분석력 2	60		
	분석력 3	60		
	비판적 사고력	80		
	표현력	5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0 ~ -60		